

##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1월 6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11분 34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종로구청에서 눈물의 작별인사

종로구청 그 강당에 당(새천년민주당) 간부들과 일부 지역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서기가 참 미안한 자리였어요. 원론적으로 정치인이 어느 지역구 살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 살림꾼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의 애로사항도 잘 살펴주고, 그리고 그게 또 지역의 자랑이에요. 지역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정치인에 대해선 남달리 좋아하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남달리 미워해요. 다른 지역구면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자기 지역구 정치인에겐 용서 못하고, 다른 지역구 의원이면 칭찬하지 않을 일도 자기 지역구 의원이면 아주 칭찬하고. 그래서 애증의 폭이 크지요. 그러다보니 당원들은 더욱더 그 의원하고 아주 밀착이 되고, 그러다보니 한국에 [사실상] 지구당이 없고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이 떠나면 지역구 지구당이 없어진 것으로 [당원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없어진다면 지구당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만큼 아주 결합이 강하게 돼있지요. 맞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종로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약간의 저항도 있었지요. 그러나 내가 그 전에(1996년 총선) 출마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종로구 기운다운(종로구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왔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당원들은 ‘이제 진짜 종로다운 물건이 하나 와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선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나 부산으로 간다’ 라고 내가 선언을 했으니 그게 당원들 처지에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역시 노무현이다. 옳다. 금배지를 버리고라도 자기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그 위험한 곳에 가는 결단을 했다’ 뭐 이런 거야 있지. ‘역시 노무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종로 사람들을 월로 보는 거야? 뽑아줬더니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한 마디 의논도 없이 제 맘대로 이제 또 보따리 싣는 건가? 보따리를 싸는 거야?’ 개인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 말이야. 여기서 이제 탁 뿌리박고 승승장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엇갈리지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도, 누구한테 가도 구박

을 받기 일쑤지요. 그러니까 슬슬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구당 정비 다 해놓고 이제 작별인사를 하는 날이 됐어요. 그날 [강당에] 모이고.

저도 명분이야 당당하고 떳떳하지만 참 황당하지요, 내가 생각해봐도. 진짜 이제 간다 생각하니 참으로 황당하더라고요. 부산 간다라고 말한 이후 종로 지역구를 다녀보면 새삼스럽게 종로 지역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우선 롯데호텔에서 청와대 쪽을 바라보면 아주 동네 생김이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등산로, 아침 등산운동만 잘하면 지역구 곳곳에 하여튼 체육공원들이 있잖아요. 등산로, 체육공원, 약수터 그냥 아침 건강관리야 뭐. 평창동, 잘 사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고 싶으면 평창동 가면 되고 서민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면 이쪽 동대문 쪽에 오면 되거든요. 그 골목, 선거 때 뛰어다니던 골목 하나하나 다닐 때마다, 다닐 때마다 하여튼 경상도 말로 앵통하지요(‘분통하다’는 말을 작고 귀엽게 표현한 사투리). 아쉬운 생각, 아쉬운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리고 당원들도 심정이 비슷하지요. ‘그래 가야지. 뭐, 말이 옳으니’ 그날 그래서 거기에서 가는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직 인선을 그대로 발표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하여튼간 그때 그 자리에서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오늘 가서 한번 따져야지. 가면 조용히 가지 뭐 하러 오라카노?’ 등등이 뒤엉켜있던 가운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조심스럽게. ‘정말 미안하다’ 당당하게 내가 출정식 하듯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어쩔든 떠나는 사람의 잘못, 약속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잘못을 비는 자리, 양해를 빌고 양해를 구하는 그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했던, 내 생각의 전부였어요. 내가 무슨 당당함을 자랑할 아무 이유도 없고. 어쩔든 나도,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간곡히 용서를 구했는데 차츰차츰 자리가 숙연해지더니 나중에, 마지막 판에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가 터지더라고. 눈물이 왈칵 났는데 왜 났는지 나도 그때도 왜 눈물이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인지, 종로를 버리는 게 아까워선지, 앞으로 당할 일이 너무 막막해선지 어쩔든 그 순간에 눈물이 찼김이 아니고 펄펄 쏟아지더라고요. 겨우겨우 수습을 했는데 아직도 전 그 눈물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아주 상투적인 것이었어요, 얘기 자체는. ‘나도 여기 오래 있고 싶고, 종로 와보니 참 좋더라’ 명예롭고, 주민들의 수준이 높고, 또 말하자면 유서 깊은 거였죠. 그야말로 1번지, 우리가 한양을 600년 정도(定都)라고 하지만 그건 종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양 600년 정도는 종로가 중심이거든요. 60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이 종로에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게 됐던 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구의 조건이 참 최상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여기에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

‘나도 여기서 계속 1번지 국회의원이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이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나 혼자 1번지 [국회의원] 하기도 그렇고, 할 형편이 아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절반의 정권, 반쪽 정권에 불과하지 않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반쪽 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지역감정과 결합되면 공은 10분의 1로 깎이고, 과는 열 배로 증폭되게 돼있습니다. ‘증폭되게 돼있는 이 구조가 바로 지역구도다. 공은 10분의 1로 깎이고, 잘못은 열 배로 부풀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 아주 중대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 다음에 분열에 관한 얘기 ‘이래갖곤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러 간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역감정과는 싸우지만 내가 영남하고 싸우러 간 건 아니거든요. ‘전국당, 전국당이라야 우리가 성공한다’ 그런 취지의 얘기이고, ‘미안하다.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지역 위원장으로 맞이해줬던 여러분 감사드리고, 종로는 바닥이 좋은 곳이니 더 좋은 분 오지 않겠나. 격려해 달라’ 그런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